



약의 효능 · 선전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약장수’라 부른다. 지금 20대야 이 말의 유래를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약장수’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장날 장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구석에 무대를 근사하게 차려놓고 원숭이의 재주나, 연극, 노래로 시골 노인네, 부녀자들을 즐겁게 해놓고 말잘하는 변사 한명이 나와선 약 선전을 늘어놓는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무슨 만병통치약이요, 특효약이다 운운하던 것이 지금 30대 이상에선 아련한 추억 중의 하나이다.

어렴풋이 기억을 되살리자면 그때 그 약들은 대개 무좀약, 구충약, 영양제나 밀가루에 맞나니 간장 버무리 놓은 가짜 약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인지 공짜구경한 값이었는지 돌아가는 몇몇 손들엔 약이 들려있기 마련이다.

그때 그 당시의 약장수를 연상할만큼 약에 대한 대중광고가 대단하다. 오늘도 TV를 틀고 어느 한 프로를 보려면 수없이 많은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의약품광고인 듯한다.



이진영



두통·치통엔 게보린, 지쳤다 싶을 땐 우루사, 두통을 해결하라 암씨롱... 등등 광고 스폰서를 내열하는 자막엔 제약회사가 받은 차지한다. 마치 그 약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병이 나올 것만 같다.

신문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의약품광고는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다. 어떤어떤 증상은 어떤병인데 이 경우엔 무엇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나도 이 병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약을 꼭 먹어야만 할 것 같다. 또 주간지나 월간지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특이한 것은 은밀한 고민이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

‘현대자본주의 꽃은 광고’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역시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지명 구매한다.

“저 인사돌 3알만 주세요.”

“어떻게 아프시죠?”

“잇몸이 아픈데요. 인사돌 먹으면 낫죠?”

“감기·몸살인데 콘택600하나 주세요”

“콧물이 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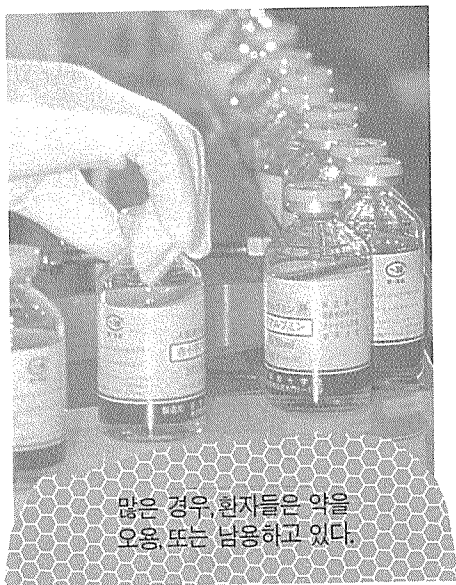
“아니요. 열이 나고 온몸이 쭈셔요”

하지만 위의 대화에서 환자는 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음대로 처방하여 약을 복용하려고 있다. 인사돌이 잇몸질환에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잇몸이 붓고 통증이 심한데 인사돌 3알로 치료될 수는 없다. 콘택600은 감기증상 중 콧물에 쓰이지 몸살·발열에 쓰이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약을 오용 또는 남용하고 있다. 광고만을 믿고서, 설부른 지식만으로, 남의 말만 듣고서 말이다.

약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와 다른 점은, 식품은 ‘먹고 살기 위해’ 먹지만 약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먹는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식품은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안생기지만(물론 장기간, 과량으로 잘못 먹는다면 문제가 된다) 약은 인체내에서 소량으로도 약리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정확히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간단한 설명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약국에 한번 심각한 증세를 가진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다. 소위 스테로이드제(부신피질호르몬제)를 남용한 결과가 어떤지를 너무나 처참하게 보



많은 경우, 환자들은 약을 오용, 또는 남용하고 있다.



여준 환자였다. 그 환자는 관절염을 고친다고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는 환약을 어디선지 남의 말만 믿고 1년이상 연용한 결과, 피부에 악성궤양이 생겨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얼굴은 둥글둥글하게 부어 이른바 문페이스(moon face)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원래 부신피질호르몬을 인체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신의 기능이 없어져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고 다른작용도 있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잘 듣는다.

하지만 연용에 의해 뼈가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거나 위궤양...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이다. 비단 스테로이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이 오·남용 되었을 때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지만 함부로 먹는 탓을 환자 탓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

그 첫째 원인으로는 약을 정확히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즉 의약분업 같은 감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환자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찌 환자탓일까. 쏟아지는 광고홍수, 불신평조... 이루 말할 수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니 거기에 속 빠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딱 하나 예를 들어보자. 신문의 대문짝만한 약광고, 눈을 씻고 둘러보면,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는 보사부의 ‘강제명령’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도 신문은 차근차근 읽어볼 수나 있

약은 인체 내에서 소량으로도 악리작용을 나타내므로 증상에 따라 정확히 먹어야 한다.





약의 오남용은 환자의
탓만은 아니다. 약의
올바른 투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이다.

다. TV광고를 보라. 강렬한 화면에 찢어지는 약장수 소리에 화면 구석에 박혀있는 문구는...

그런 탓에 광고에 현혹된 환자, 짧은 지식으로 잘난 척하는 환자가 정말로 많다. 앞에 언급한 대화내용이 반복되고, 약사의 자상한 상담의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이 기회에 환자가 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다. 믿을라치면 광고의 한쪽 구석에 콩알만한 글씨체로 된 "의사나 약사와 상담 및 설명서 참조" 조항부터 믿으라고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약을 과신하지도 불신하지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어떤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약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약은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며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지만 모든 병의

치유과정은 신체 스스로의 치유력에 기인하며 약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약의 복용과 함께 질병에 따른 섭생, 운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흔한 감기의 경우라면 적당한 습도, 온도의 조절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 만성병으로 장기적인 약의 복용이 필요한데도 약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질병, 약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꾸준한 치료를 부탁한다.

그리고 자기 체질에 어떤 약이 과민반응을 보였을 때는—무슨 약이라도 그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해열·진통제나 항생제에 많다—반드시 기억하였다가 약을 복용할 경우 약사와 상의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자기 몸을 책임지는 확실한 길이다.

〈필자=불광동 진영약국 약사·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약사회원〉